(제43권 20호)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7TH SUNDAY OF EASTER

주후 2021년 5월 1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42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20번 시편(Psalm) 91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Leading	**빌립보서(Philippians) 1:3-11**	이기율 집사
설 교 Sermon	**"다시 만나는 교회(27) – 분별함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Discernment)**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홍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317) 1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과 일상의 분주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항상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더 이상, 회개 없는 용서와, 십자가 없는 부활과,
예수님 없는 왜곡된 복음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더욱 성결하고, 더욱 온전하며, 더욱 신실하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매순간 성령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엡 4:30)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한글개역 **빌1:9-10**)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knowledge and depth of insight, so that you may be able to discern what is best and may be pure and blameless until the day of Christ" (NIV **Philippians 1:9-10**)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16 (주일)	5/17 (월)	5/18 (화)	5/19 (수)	5/20 (목)	5/21 (금)	5/22 (토)
본문	민25	민26	민27	민28	민29	민30	민31
	시68	시69	시70,71	시72	시73	시74	시75,76
	사15	사16	사17,18	사19,20	사21	사22	사23
	벧전3	벧전4	벧전5	벧후1	벧후2	벧후3	요일1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5/19수 오후7:30)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고후4:1-7)
토요 새벽기도회 (5/22토 오전6:30)	"내 죄를 슬퍼합니다" (시38:9-22)

지난 주일(5/9, 어머니 주일)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6) – 사랑으로" (요일 3:11-24)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단지)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는 정도의 권면이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물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고"(고전13:2)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전13:3)는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모든 계명의 핵심이기에, 믿음과 사랑은 결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6)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믿음, 또는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은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만이 (바로) 참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사람'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면, (그래서) 둥글고 원만하게 되면, (비로소) '사랑'이 된다" 즉, 'ㅁ'에서 'ㅇ'으로의 변화가 (바로) 사랑으로의 변화이며, (이를 위해) 우리의 모난 부분은 (계속해서) 깎이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